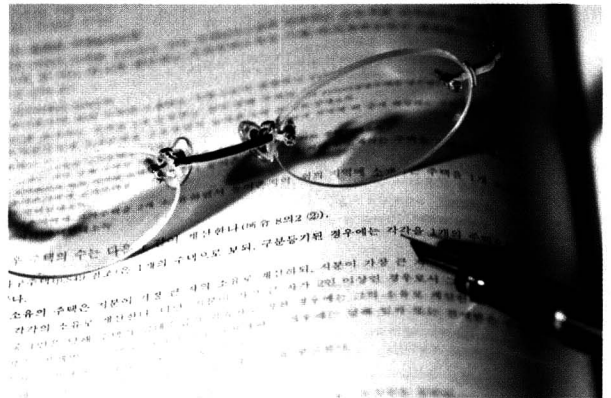


# 기독교 서적 번역

바로 며칠 전이다. 한 출판사 사장이 급히 찾아왔다. 예쁜 책인데 빨리 번역해달란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책이다. 나는 책을 대충 훑어보았다. 물론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God였다. 내가 물었다. “하느님으로 할까요, 하나님으로 할까요?” “하나님으로 해주세요.” 이상했다. 그 사장은 가톨릭 신자여서 당연히 하느님으로 번역해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물었다.

글 강주현

“하느님으로 번역하면 개신교 신자들은 책을 덮어버려요. 물론 사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가톨릭 신자는 하나님으로 번역된 책을 보면 사나요?”라고 물었다. 가톨릭 신자는 그런 이름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출판사 사장이 돈을 벌겠다고 종교까지 팔았다고 욕하지마라. 내가 알기에 그분은 누구보다 영혼이 맑은 분이다.



## 왜 번역하는가?

번역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이유로 1년에 적어도 1권의 기독교 서적은 번역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세상의 어떤 책이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른바 책의 엄숙주의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정치적 이념이나 철학이 내 기본적인 생각과 동떨어진 책이라도 배울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번역을 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독교 서적을 번역할 때는 조심스럽다. 개인적인 성향이 반골적이어서 그렇겠지만 기존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복하는 책은 달갑지 않다. 따라서 기독교 서적을 번역할 때는 ‘왜 번역하는가?’를 따지는 편이다. 그래서 《아베스의 기도》가 베스트셀러로 날개돋힌 듯 팔릴 때 그런 기도는 틀렸다는 생각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를 주저없이 번역했다. C. S. 루이스에 관심을 갖고 그의 평전을 차례로 번역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존 엘드리지의 《예기치 못한 사랑》과 《마음의 회복》을 번역한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왜 번역하는가?’라는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도 접근되어야 한다. 어쩌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기독교 서적을 왜 번역할까? 기독교인을 위한 책도 있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리는 책도 있다. 그렇다면 두 책의 번역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그렇다, 적어도 기독교 서적은 ‘왜 번역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좁게 생각한다면, 《아베스의 기도》는 전적으로 기독교인을 위한 책일 수 있지만 《세상을 바꾼 100가지 성경 구절》이란 책이 있다면 그 책은 기독교인만을 위한 책일 수 없다. 그러나 넓게 생각하면 이런 구분도 모호해진다. 책을 번

역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서적을 번역하는 이유는 기독교적 사상이나 삶을 기독교인만이 아닌 모두에게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의 말을 실천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기독교 서적의 번역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데 있다는 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 번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기독교는 그들만의 독특한 어휘를 갖는다. 가령 Jesus warned the seeker of signs in very serious terms를 번역해보라 하면, 기독교인은 십중팔구 '예수는 표적을 찾는 사람들에게 따끔한 어조로 경고했다' 라고 번역한다. sign을 '표적' 이라 번역한 것이다. 기독교 세계에서 표적은 '중개' 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책을 비기독교인이 읽는다면 '표적' 을 그렇게 해석할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기독교 교회 자체는 그들만의 리그일 수 있지만 책은 그럴 수 없다. 책은 종교를 떠나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기독교는 그들만의 독특한 어휘를 만들어낸다. 대표적인 단어가 '거듭남' 이란 단어다. 성경에서 You must be born again은 '너는 거듭 나야 한다' 라고 번역된다. 실제로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개역성경에서도 '거듭 나야한다' 로 번역됐다. 번역된 성경을 잘 보면 '거듭' 과 '(태어)나다' 가 떨어져 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둘이 붙어서 한 단어가 됐고, 그것이 명사로 바뀌어 '거듭남' 이 됐다. 여기에서 again은 '거듭' 이긴 하지만 '다시, 새롭게' 라는 뜻이다. 국어사전을 보면 '거듭' 은 '어떤 일이 되풀이' 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면 '거듭남' 은 변하는 것도 없이 그냥 다시 태어나는 행위를 가리킬 뿐이다. 게다가 성경의 오독이고 곡해다. 그런데 어느새 아주 의미있는 단어로 둔갑해버렸다.

기독교 서적은 모두가 인정하는 외국어 표기법을 무시한다. 특히 개신교 출판사의 서적이 그렇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다. 결국 기독교 서적의 번역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번역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루터가 기독교를 위해 가장 크게 공헌한 일은 성경의 대중화였다. 요

즘도 개신교는 악착스레 개역성경을 고집한다. 물론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권하는 교회도 있지만 예배시간에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는 여전히 개역성경이다. 또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책에 인용되는 구절은 이상하게도 개역성경을 고집한다. 개역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종종 수수께끼같은 말이 나온다. 누군가 해석해주지 않으면 뜻을 도무지 헤아리기 힘들 지경이다.

예를 들어보자. "할례할 팔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태어난 지 팔 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라는 뜻이다. 이렇게 고치면 얼마나 쉬운가? 그런데도 기독교 출판사가 책에 인용되는 구절을 개역성경으로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번역가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고유명사와 성경구절의 인용은 출판사의 몫이라고 하자. 그들도 언젠가 책을 번역하는 목적으로 원대하게 키운다고 두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테니까. 번역가는 비록 기독교인이더라도 그 뉘새를 탈색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로 지적인 문제는 자신이 일상에서 어떤 단어를 쓰는 가를 조금만 헤아리면 쉽게 해결된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기독교 서적은 대부분 기독교인이 번역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성경과 목사의 설교에 세뇌(?)되어 우리말답지 않은 우리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세계화 시대가 됐다고 우리말을 버릴 수는 없다. 종교적 언어를 위해서 우리말을 파괴할 수는 없다. 우리말을 지키는 사람은 작가만이 아니다. 오히려 작가는 비유를 위해서 우리말을 파괴하기도 한다. 그럼 글을 먹고 사는 사람 중에 우리말을 지킬 사람은 번역가밖에 없다. 번역가가 그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게 내 믿음이다. ■

강주현님은 언어학 박사이며 전문번역가로 활동중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 프랑스 브장송 대학에서 수학했다. 역서로는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선물》 《나의 프로방스》 《케으른 산책자》 등 100여 권이 있다.